

3) 순천의 의병활동

전남 동부지역 의병들의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면, 의병의 첫째 목표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순천지역 의병들은 일제의 군경과 맞서 싸우거나 일제의 시설물을 공격하였다. 순천에서 발생한 반일투쟁의 내용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표에 보이듯이, 순천지역에서는 안규홍 의병부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안규홍 의병은 쌍암시장에 주둔 중인 일본의 척후대를 새벽에 기습하여 척후장 고하이평차(古賀伊平次)를 비롯한 3명을 죽인 사건으로 유명하였다. 이들은 약 1년 전에도 보성군 조성면 파청에 매복하고 있다가 일본 헌병대를 공격하여 2명을 죽이고 1명을 중상시킨 적도 있었다. 그밖에 조규하 의병의 활동을 살필 수 있으며, 일본이 '수괴불명(首魁不明)'이라 기록하여 어떤 의병부대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일본의 수비대와 헌병대·순사대 등의 군경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으며, 간혹 임지로 부임하는 순사나 피체된 의병을 호송하는 경찰들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순천에서의 반일활동

의병명(규모)	교전날짜	교전장소 및 대상	전과와 피해	비 고
강용언(40)	1908. 3. 21.	월등면 구남시, 순사대	의병 1명 전사	
안규홍(40)	1908. 5. 15.	송광면 대곡리, 주재순사		
의병(17)	1908. 5. 17.	쌍암면 구구촌, 통신시설	전주 절단	
조규하(40)	1908. 5. 29.	송광면 낙수장, 순사대	화승총 4정 피탈	
황연창(20)	1908. 5. 29.	황전면, 순사대	의병 3명 전사	
조규하(40)	1908. 6. 11.	쌍암면, 수비대와 경찰	의병 14명 전사	피 습
의병(30)	1908. 6. 22.	쌍암면 서동리, 토벌대	의병 11명 전사, 한병총· 노국총·화승총 피탈	피 습
의병(8)	1908. 7. 20.	서면, 순사대	순사대 마부 피살	
의병(45)	1908. 7. 28.	송광면 송광사, 수비대	의병 1명 전사	
김도진(10)	1908. 7. 31.	월등면 월평리, 수비대	의병 2명 전사	
의병(7)	1908. 8. 5.	서면 송치, 순사대	의병 호송하는 순사공격	
의병(수명)	1908. 10. 18.	쌍암면 관운치, 통신시설	전주와 전선 절단	
의병(?)	1908. 10. 20.	서면 비월리, 수비대	수비대 3명 중경상	
의병(50)	1908. 12. 24.	낙안 외서면, 토벌대	의병 8명 전사	
의병(150)	1909. 1. 11.	낙안 고읍, 헌병대	의병 1명 전사, 1명 피체	
의병(10)	1909. 2. 7.	서면 외동, 통신시설	전선 다량 절단	
안규홍(20)	1909. 2. 26.	낙안 남상, 헌병대	의병 2명 전사	
의병(30)	1909. 3. 2~3.	월등면과 서면, 수비대	2차 교전 중 의병 4명 전사	
의병(50)	1909. 3. 20.	송광면 낙수, 분건대	의병 3명 전사	
의병(60)	1909. 3. 24.	쌍암면 풍치, 수비대	의병 9명 전사	
안규홍(20)	1909. 4. 20.	쌍암시장, 수비대	수비대 3명 살해	기 습
의병(15)	1909. 5. 27.	순천 용두면, 우편체송 일본인	일본인 피살, 휴대품 노획	
의병(10)	1909. 6. 1.	쌍암면 선암사, 분건대	의병 3명 전사	
의병(60)	1909. 6. 30.	쌍암면 신한리, 헌병대	의병 27명 전사	피 습

출전 : 이일룡 역, 『천남폭도사』, 전남일보인서관, 1977.

순천지역의 의병들은 대체로 수십 명 단위로 사방에서 빈번하게 대일항쟁을 전개하였다. 이는, 유격투쟁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일본 군경의 활동을 분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반일활동이 주로 이루어진 지역은 예전의 승주관내가 많으며, 일본의 통신시설을 파괴한 점도 주목된다. 아울러 일본에 기습을 당한 경우에는 의병의 피해가 상당하였는데, 일본이 의병의 피해를 과장하여 보고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열악한 무기와 전혀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민간인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병의 피해는 일본측보다 항상 많을 수밖에 없었다.

앞의 표는 일제가 파악한 반일활동에 국한된 것이다. 여기에 친일세력의 처단이나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활동까지 포함한다면 순천지역에는 의병의 함성이나 총성은 거의 날마다 메아리쳤을 것이다. 더욱이 인근지역의 활동까지 합한다면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의병의 둘째 목표는 친일세력의 처단이었다. 당시 대표적인 친일세력은 일진회(一進會)였다. 1904년 12월, 일진회는 진보회(進步會)와 통합하여 노골적인 친일행각에 나섰다. 일진회는 일본군 통역 출신의 송병준(宋秉峻)과 동학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용구(李容九) 등이 주도하였다. 1907년 후반부터 의병들이 크게 일어나자, 일본의 앞잡이인 일진회는 의병의 좋은 공격대상이었다. 이에 일진회는 자구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위단(自衛團) 결성을 친일정권에 건의하였다. 일제와 이완용 친일내각은 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1907년 말부터 1908년 초까지 의병의 공격을 방어할 자위단 결성을 추진하였다. 일진회가 여기에 깊숙히 관여하였음은 물론이다. 일진회는 회원들을 모두 자위단에 가입시키거나 자위단원조회에서 활동케 함으로써 더욱 의병의 반감을 사게 되었다. 20~40세 가량의 청장년으로 구성된 자위단은 전국의 면단위까지 조직되어 호구조사, 사장무기(私藏武器)의 회수, 순라와 경계활동 등에 투입되었다.¹⁾ 이는 의병의 근거지 색출과 의병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의병들은 일진회원을 만나면 죽이거나, 그의 집을 불살라버렸다. 그들이 의병의 행적을 낱낱이 일제의 군경에게 밀고하였기 때문이다. 순천지역의 의병들도 일진회원을 만나면 가차없이 죽였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09년 8월) 3일 오후 6시경 순천군 낙서면 상고리에 수괴 안진(安進 : 안규홍)이 인솔하는 휴총자(携銃者) 상반(相半)한 폭도 270명이 내습하여 용반리에 사는 진 일진회원 이용서(李用西 : 49세)가 항상 헌병과 일간(昵懇) 통모하고 폭도의 행동을 밀고하고 있다 하여 용감한 부하 7명에게 동인을 납치하게 하였다. 이를 월평리 동방 낙안에서 광천점(廣川店)에 통하는 노상에 납거(拉去) 참살(斬殺)하고 부근 주막 문비(門扉)에 그 이유로, 동인(同人)은 헌병과 통하고 항상 우리의 행동을 밀고하였음으로써 그리 하였다는 첩지(貼紙)를 하였다. 그날 밤 상고리에 숙

1) 홍영기, 「1907~1908년 日帝의 自衛團 조직과 한국인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3, 1995.

박하고 다음 4일 오전 6시경 순천군 송광면으로 거하여 종적을 잃었다 한다.(한국독립운동사』15, 281쪽)

안규홍 의병은 일진회원을 납치, 처단하고서 그 이유를 술집 문에 써 놓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자주 일어났는데, 그들이 친일활동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1908년 초에 많았는데, 그것은 일진회원의 자위단활동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의병의 행적을 신고한 사찰 승려나 마을 이장, 일본인 집에서 일하는 고용인 등도 의병의 응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의병은 그들을 살상하거나, 그들의 집을 방화하였던 것이다. 의병의 마지막 목표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의병들은 본래 농사일을 하는 농민이거나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이를 위하여 의병들은 주로 조선에 이주한 일본인들을 공격하였다. 예컨대, 황병학 의병부대가 광양의 망덕에 이주한 일본인 어부들을 죽이고 그들의 어선을 불태운 일도 있었다.²⁾ 다음의 기록이 그것이다.

(1908) 9월 1일 오전 3시 비도 50명(양총 3·화승총 25)이 광양군 진하면 망덕리에 내습, 일본인 어부 오카야마현(岡山縣) 사람 가꾸노(角野仁三郎)와 그의 처 이소 및 장남 아끼라(明)를 총살하고 가옥을 불사른 다음 이 마을의 잡화상 고오지현(高知縣) 사람 이시다(石田耕作) 집에 내습, 고용인 다까하시(高橋吉助)를 바다에 던져 익사케 하고 또 해안에 매어둔 일본어선을 불살랐다.(천남폭도사』, 62쪽)

이 사건은 의병이 일본 농어민의 조선 진출을 적극 저지하였다는 점에서 일본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당시 일제는 자국의 농어민들이 조선에 들어오는 것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농어민들은 조선인 소유의 농지와 어장을 불법적으로 약탈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처사에 조선의 농어민들이 강력히 반항하였으며, 영광의 어민들은 결사대를 조직할 정도였다. 따라서 의병들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농어민 이주자들을 공격하였던 것이다.

또한 의병들은 농어민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거두어가는 세무관리들을 공격하였다. 예를 들면, 의병 100여 명이 여수군 울촌면 평촌리에서 세금을 거두고 있던 여수재무서장 양명희(梁明熙) 일행 5명을 공격하여 2명을 살해하고 그밖의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³⁾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우편체송인들을 공격하였는데, 그들도 세금징수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면장이나 이장 등도 징세업무를 독려하였기 때문에 의병들의 표적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전남지역에서는 일제의 의도대로 세금이 징수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병에게 세금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 이주민들이 전남지역의 농어촌에서 생활하기란 더욱 어려웠다. 전남지역 의병의 활동이 왕성할수록 일제의 침략이 더더지게 된 것이다. 특히, 전남지역 의병들은 “의병과 주민은 머리와 꼬리처럼 서로 붙어 있다. 재난은 서로 도와주어 서로 믿고 의지함이 마치 부모 형제의 친밀함과 같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즉, 이들은 주민들과 긴밀한 유대하에 보국안민을 지향하는 장기항전을 전개하였다.

2) 김남 편, 『義士黃炳學』, 전광산업사, 1983, 13쪽.

3) 이일룡 역, 『천남폭도사』, 전남일보인서관, 100쪽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13, 741쪽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15, 476쪽.